

NEAR News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NEAR | NEAR Leading the Era of Northeast Asia | 2008년 7월~8월 / 제22호



몽골 전통 축제 '나담'의 활쏘기 대회
Archery competition of Mongolian traditional festival "Naadam"

특별기고

동북아시아 발전을 위한 경영자의 역할

이달의 동정

NEAR 활동 | 사무국 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기획취재

"검은 황금을 캐라!"

NEAR 회원 탐방

몽골 오르혼아이막

Special Contribution

The Role of Business Executives in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NEAR This Month

NEAR Activities | Secretariat News | NEAR Member News

Feature Report

"Go for the Black Gold!"

NEAR Member Tour

Orkhon Province Mongolia



NEAR News

조곡 관제 2(관문)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Chogokkwan(Second gateway) :
MungyeongSaeJae Provincial Park, Mungyeong City, Gyeongsangbuk-do

「NEAR NEWS」는 회원단체 서로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의 활동상황, 회원 단체 동정, 관련 국제동향, 각종 기고, 공지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회원단체 및 관련기관에 무료 배포되며 NEAR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이며, NEAR와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NEAR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NEAR News” aims to become an official messenger of NEAR to deliver news and share information among members. It is a periodical newsletter containing contents on NEAR activities, member news, international issues, contributions, notification, etc. NEAR News is distributed to NEAR members and related institutions free of charge, and is also serviced online on the NEAR homepage

NEAR News is open to anyone who is interested in Northeast Asia. If you have good contribution articles or creative ideas that you would like to run on the NEAR News, please contact the NEAR Secretariat.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모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그 후 북한과 몽골이 신규 회원 단체로 참여, 현재 6개국 65개 자치단체로 성장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입니다. 연합은 그 동안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 변경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NEAR is ...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sisting of 65 member governments from six countries.

It was founded back in September 1996 in Gyeongju, South Korea by 29 governments from four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With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and Mongolia and the accession of new member governments, NEAR has grown a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association devoted to regional diplomacy and cooperation.

NEAR has adopted NEAR Charter based on the ideology of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established a permanent secretariat office in Pohang, Korea and carried out extensiv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economy and trade, cultural exchange,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general exchanges to cross-border cooperation.

세계 속의 동북아시아의 역동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고정자산 투자와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2003년 이래 5년 연속 전년 대비 10%를 넘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약간의 과열 양상이 우려되며 향후 금리 조절 및 위안화 절상 등을 통해 다소 진정되기는 하겠지만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 가스와 석유 수출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구 소련 시대의 고도 기술력도 뒷받침되어 앞으로의 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이후의 안정적인 성장에 있어서 산업 다각화가 초점이 되고 있는데, 금년 5월에 출범한 메

드베데프 정권에서는 제조업 확대 등 에너지 산업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러한 움직임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1998년 국제 통화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한국은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 산업이 견실하며 관련 분야의 확장세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특히 휴대폰과 가전 제품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킴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한국의 전세계 시장에 대한 공세는 아시아 기업의 모델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세계 제3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구리와 몰리브덴, 석탄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시장 경제의 진전과 각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경제 원조 등으로 사회와 경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도 환경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 문제 등 전세계적인 과제에 공헌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는 눈부신 경제성장, 광대한 영토와 자원 매장량,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고도의 기술력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세력들이 국경을 접하거나 집중된 지역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문화교류의 확대는 향후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 경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교역에 따른 상호 이윤을 증대하고 국제적인 안정과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자에게 부여된 책무는 중요하며,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기여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동북아시아지체연합(NEAR)은 1996년에 설립된 이래 6개국 65개 자치단체가 참가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향,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자치단체간의 협조는 정부 차원에서, 또한 국제 표준화 책정, 학술교류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무수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자치체연합(NEAR)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외부 기고는 본 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발전을 위한 경영자의 역할



후루카와 카즈오

히타치제작소 사장 및 최고경영책임자

Kazuo Furukawa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Hitachi, Ltd.

Northeast Asian economies have shown great dynamism in the global stage.

With dazzling economic performance lately, China has achieved a growth rate of more than 10% for five consecutive years since 2003 based on investment in fixed assets and export expansion. There are concerns over a slight overheating, but interest-rate adjustment and revaluation of the yuan

will cool the economy down to some degree. There is no doubt that the world's biggest market with its 1.3 billion population will further play a pivotal role in the global economic landscape.

Meanwhile, Russia has maintained high economic growth rate thanks to considerable natural gas and oil export and is projected to do so in the future as well considering high

The Role of Business Executives in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technology from the former Soviet era. Since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of Russia is heavily tilted toward energy, much emphasis is put on diversification to ensure stable growth in years to come. Inaugurated in May this year, the Medvedev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diversify its industry by expanding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people are closely following such developments.

Dramatically recovering from the 1998 financial crisis, Korea has built a solid Internet- and semiconductor industry, of which remarkable expansion is admired by Japanese companies as well. In particular, meeting the needs of various consumers from all over the world, Korean products including cell phones and home appliances have increased their presence in the global market and become very important for mapping out global strategies. Korea's aggressive business activities in the global market have begun to emerge as a new model for Asian companies, which is closely watched in the industry.

Boasting the third largest copper reserve, Mongolia has been the focus of the world's attention as a nation abundant in natural resources including molybdenum and coal. Since 1990, more notably, it has undergone significant social, economic change due to the advancement of market economy and economic assistance from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apan possesses highly sophisticated technology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nvironment and is committed and able t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challenges among other global issues.

Thus, in view of the brilliant economic growth, vast land, rich natural resources, large population accounting for one fourth of the world and high technological capacity, Northeast Asia is undoubtedly a region where important economies are concentrated bordering each other. Therefore, peace, stability and expansion of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of this region are essential for the future of the global economy.

In this regard, what kind of role is expected from business executiv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best answer is to do business with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region while keeping alert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rans-border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is projected to become more and more intensified. I believe that the implementation of sound and accountable business practices for the local community and stakeholders is the only way to increase mutual benefit from trade and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stability, peace and prosperity. This is an important obligation for business leaders. I also firmly believe that we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transcending borders and generations to fulfill such obligation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Since established in 1996,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has worked for the enhancemen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dministration, economy and culture with the membership of 65 member regional governments from six countries. Local authorities have long been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t the governmental level in many fields including academic exchanges 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leading to countless results. I have high expectations of NEAR's engagement and contribution for future development in such areas and activities.

(The publication of authors may not coincide with the editorial direction of this paper.)

NEAR 활동

● 2008 NEAR 실무자 워크숍 결과보고

지난 5월 NEAR 실무자 워크숍에서 발표된 동북아 연합의 교류 확대 및 발전 방안의 내용과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 연합 교류확대 및 발전방안: 3개 단체

단체명	내 용	조치계획
대한민국 경상북도	▶ 동북아연합의 발전방안 A. 연합회비제 도입 B. 실무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News Letter지에 시리즈로 다루어 의사소통을 활성화 C. 동북아연합사무국에 파견근무한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교류방안 제언 D. 동북아연합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제언	A. 9월 총회 상정 B. 사무국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C. 사무국에서 추진 중에 있음. D. 사무국에서 추진 중에 있음.
몽골 셀렌게 아이막	▶ 연합교류 발전 방안 A. 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회비제 도입 등을 통한 연합금 설치 B. 타 국제기구와의 전문가 교환 및 주요 시책 도입 연구 등	A. 9월 총회 상정 B. 사무국에서 타 국제기구와 유대 관계를 적극 구축 중에 있으며 연수에 대해서도 고려하겠음.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경주	▶ 회원단체 간 경제협력 방안 A.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해서 NEAR를 적극 활용 B. 사무국에서 '동북아국가 경제문제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연구를 하자는 제안' ▶ 9월 총회에 북한의 회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A. 사무국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임. B.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의장단체와 사무국에서 적극 노력하겠음.

■ 참여지원단체 홍보 및 협조사항: 10개 단체

단체명	내 용
중국 산둥성	2008년 동북아지원단체연합 총회 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요망 - 일시: 9월 1일~4일 - 장소: 산둥성 제남시
일본 돗토리현	돗토리현과 동북아지역과의 국제교류 현황 소개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북바이오 코리아 2008 오송」 행사 시 회원단체 참여 요망 - 일시: 10월 8일~10일 - 장소: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2012 여수세계 박람회 등 소개 및 행사 시 회원단체 참여 요망 - 일시: 2012년 5월 12일~8월 12일 - 장소: 여수시
대한민국 경상남도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 시 회원단체 참여 요망 - 일시: 10월 28일~11월 4일 -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러시아 토姆斯크주	토姆斯크주 일반현황 및 동북아 교류현황 소개
몽골 흐브다아이막	2008년 개가일식 소개 및 행사 시 회원단체 참여 요망 - 일시: 8월 1일 - 장소: 흐브다아이막
중국 산둥성	제3회 친환경산업 국제박람회 및 동북아지역 환경보호상담회 기본현황 소개 및 행사 시 회원단체 참여 요망 - 일시: 9월 3일~5일 - 장소: 산둥성 제남시
중국 하남성	동북아지원단체에 실질적인 협력의 장 제공 등 관광 분야에 대한 하남성의 적극적인 노력 소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소개 및 제6차 총회 시 회원단체 참여 요망 - 일시: 10월 9일~11일 - 장소: 대전

NEAR Activities

● The 2008 NEAR Working-Level Workshop Report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suggestions made by NEAR members during the 2008 Working-Level Workshop in May and follow-up plans:

■ I. Suggestions (3 members) and Follow-up Plans to Facilitate NEAR Activities

Member	Suggestion	Follow-up plan
Gyeongsangbuk-Do Province (Korea)	▶ To Improve NEAR Operation A. Introduce membership fee B. Publish interviews with working-level officials in the newsletter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members C. Continuous exchange with dispatched officials who returned to their countries D. Devise measures to make the most of NEAR homepage for information exchange	A. Submitted to the 7th General Assembly in Shandong B. Under review /to be scheduled C. Under implementation D. Under implementation
Mongolia Selenge Aimag	▶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A. Establish NEAR fund by introducing membership fe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NEAR in the long term B. Introduce officer exchange and training program in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ake concrete measures to meet the objective of NEAR	A. Submitted to the 7th General Assembly in Shandong B. Working on establishing ties with other international bodies/ training system under consideration
Russia Khabarovsk Territory	▶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mong Members A. Make the most of NEAR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B. Studies and information analysis on economic issu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by NEAR Secretariat ▶ To engage North Korea in the upcoming NEAR General Assembly	A. Planning to diversify programs for economic cooperation B. Under review/to be scheduled Positive efforts by Shandong province and the Secretariat

■ II. Call for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10 members)

Member	Theme
Shandong Province (China)	The 2008 NEAR General Assembly -Date : 1~4 September -Venue : Jinan City, Shandong Province
Tottori Prefecture (Japa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exchange of Tottori with other Northeast Asian regions
Chungcheongbuk-Do Province (Korea)	IBio Korea 2008 Osong Conference and Exhibition -Date : 8~10 October -Venue : Osong Bio-Health Science Technopolis
Jeaollanam-Do Province (Korea)	Expo 2012 Yeosu Korea -Date : 12 May~12 August, 2012 -Venue : Yeosu City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	The 10th Ramsar Convention -Date : 28 October~ 4 November -Venue : Changwon Convention Center
Tomsk Region(Russia)	The General Status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Tomsk
Khovd Province (Mongolia)	Total Eclipse of the Sun -Date : 1 August -Venue : Khovd Province
Shandong Province (China)	The 3rd International Exhibition on Green Industry &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y Fair -Date : 3~5 September -Venue : Jinan City, Shandong Province
Henan Province (China)	Henan's Readiness to Host Sub-Committee on Tourism
Daejeon Metropolitan City (Korea)	The 6th WTA(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General Assembly -Date : 9~11 October -Venue : Daejeon

사무국 소식

● NEAR 사무국 대표단 2008 UCLG ASPAC 총회 참가

이해두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NEAR 사무국 대표단은 국제기구로서의 NEAR 홍보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7월 14일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Green City Workshop (그린시티워크숍)과 7월 15일~18일 열린 UCLG ASPAC 총회에 참석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 절감'을 주제로 UN ISDR(UN국제재난감소전략기구), WB(세계은행) 등이 공동주최한 Green City Workshop (그린시티워크숍)에서는 동아시아 각종 지방 행정기관 및 환경단체, UNEP, UNESCO, UNESCAP, UN HABITAT 등의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동아시아 도시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재난 위기 관리를 위해 WB와 UN ISDR가 공동 편찬한 지침서가 소개되었다.

한편,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4일간 개최된 2008 UCLG ASPAC(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태지역) 총회에서는 김범일 대구광역시 시장이 UCLG ASPAC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울러 이해두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중국 난징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도시포럼(WUF 4) 준비를 목적으로 UCLG ASPAC 총회와 동시 개최된 WUF 4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아태지역 지방자치단체연합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Green City Workshop에서 피터 우즈(Peter Woods)사무총장과 인사하는 이해두 NEAR 사무총장

NEAR Secretary General met with Peter Woods, UCLG ASPAC Secretary General at the Green City Workshop meeting.

● 연합사무국 일본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 방문

연합사무국의 이해두 사무총장은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 시에 연합 홍보 및 연합 가입 권유를 하였다. 또한 히타치 제작소의 본사를 방문하여 후루카와 카즈오 사장과 면담, 연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회원단체들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였고 이어 아사히 신문사를 방문, 연합 홍보와 가을에 열리는 NEAR 국제경제포럼에 관한 홍보를 부탁하는 등 민간 분야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했다.



NEAR 사무총장과 아리오카 히로시 히로시마현 부지사
Secretary General Lee and Vice Governor Hiroshi Arioka of Hiroshima Prefecture

Secretariat NEWS

● NEAR Secretariat Delegation Participated 2008 UCLG ASPAC Congress

A delegation of NEAR Secretariat led by Secretary General Lee, Hae Doo visited Pattaya, Thailand to participate in Green City Workshop on 14 July and in the 2nd UCLG ASPAC Congress from 15~18 July in an effort to promote NEAR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build up partnership with other associations. The Workshop, a joint undertaking of UN/ISDR, the World Bank, GFDRR and UCLG ASPAC, was held under the theme of "Reduc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Impacts and Related Natural Disasters in Asia", bringing toget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environment exper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EP, UNESCO, UNESCAP and UN-HABITAT. During the workshop, a Primer on Climate Change Impacts in Urban Areas of East Asia was officially launched.

Meanwhile, during the UCLG ASPAC Congress, Kim Bum-Il,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 was elected co-president of the organization. Also, Secretary General Lee was appointed member of Expert Group Meeting held in concurrence with the Congress in preparation for the 4th Session of the World Urban Forum(WUF-4). The WUF-4 is scheduled to be held in Nanjing, China in November 2008.



타요 (Edmund S. Tayao) LOGODEF 사무총장, 다히야(Bharat Dahiya) UN-HABITAT 인간정주사무관, 이해두 NEAR 사무총장 (왼쪽부터)

Edmund S. Tayao, Secretary General of LOGODEF; Bharat Dahiya, Human Settlements Officer of UN-HABITAT; Hae Doo Lee, Secretary General of NEAR (from left)

● Secretariat Delegation Visited Hiroshima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Japan

NEAR Secretariat General visited Hiroshima City and Hiroshima Prefecture, Japan from 5-11 June to introduce NEAR and invite the prefectural government to join the organization. Meanwhile, in an effort to seek partnership with private sector, he met with Kazuo Furukawa, President and CEO of Hitachi, Ltd., a leading global electronics company based in Tokyo, to provide general overview of NEAR activities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NEAR members. Also, he visited Asahi Shimbun, a leading Japanese daily newspaper, to ask for support in promoting NEAR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scheduled to be held in November.

사무국 소식

● 연합사무국, 국제 스포츠 경기 '제4회 아시아의 어린이' 개막식 참석

이영화 연합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지난 7월 4일에 사하(아루치야) 공화국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 '제4회 아시아의 어린이' 개막식에 참석,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개막식에 앞서 이영화 사무국장은 슈피로프 사하(아루치야) 대통령을 예방하여 '제4회 아시아의 어린이'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했으며, 미하일로바 부통령, 니코노프 외무부 장관을 면담하여 연합과 사하(아루치야)공화국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빌프레드 롬케 UN 사무총장 스포츠부문 고문, 유시카비 추스 겐리흐 지그문도비치 UNESCO 사무총장 고문, 장 로쉬 UNESCO 문화국장, 사난 태국 부총리, 이규형 주러 대한민국대사 등이 참가,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미하일로바 부통령(왼쪽에서 2번째)과 이영화 사무국장(가운데)
Vice President E.I. Mikailova (2nd from left) and Deputy Secretary General Lee (middle)

사하(아루치야) 공화국에서 7월 3일~13일까지 개최된 '아시아의 어린이'는 1996년 제1회 대회 이후 4년마다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으로서 올해는 러시아 연방 27개 광역자치단체 및 해외 16개국에서 3,038명이 참가했다.

회원자치단체 동정

하남성 - 중국

● 하남성·경상북도 미술전 경북 영천시에서 개최

제4회 하남성·경상북도 미술교류전이 6월 5일부터 15일까지 경북 영천시에서 개최되었다. 김상준 경북도청 문화예술 과장과 하남성 문화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장 자연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꾸어 경마오 하남 성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각각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4년 연속 개최된 이 행사는 양 지역의 서예가 및 화가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양 지역간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제5회 교류전은 2009년 4월 하남성 낙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ecretariat NEWS

● Secretariat Delegates Participated in the IV Children of Asia International Sports Games

A Secretariat delegation led by Lee Young Hwa join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V Children of Asia International Sports Games ("Children of Asia") held on 4 July in the Republic of Sakha (Yakutia) and encouraged athletes. In the previous meeting with President V.A. Shtyrov of Sakha, Deputy Secretary General Lee wished for the success of the event and discussed with Vice President E.I. Mikailova and Foreign Minister G.D. Nikonov ways to promote close partnership between NEAR and Yakutia. The Sports Games were celebrated by high-profile attendants, such as Wilfried Lemke, Special Adviser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Jean Roche, Permanent Delegate of CIOFF to UNESCO; Sanan Kajornprasart, Prime Minister of Thailand; and Kyu Hyung Lee, Korean Ambassador to Russia. The Olympic Games which has been held every four years since its inception in 1996, was participated by 3038 people from 27 wide-area-unit local governments and 16 countries.

NEAR Member News

Henan Province - China

● Henan - Gyeongsangbuk-Do Art Exchange Exhibition Held in Yeongcheon

The 4th Henan - Gyeongsangbuk-Do Art Exchange Exhibition was held from 5~15 June in Yeongcheon City, Gyeongsangbuk-Do Province. Sang Joon Kim, Director of the Culture and Arts Department of Gyeongsangbuk-Do and Zhang Jianfeng, Deputy Counsel of the Henan Federation of Literary and Art Circles joined the opening ceremony while Governor Guo Gengmao and Kwan Yong Kim, the head of Henan and Gyeongsangbuk-Do, respectively, sent congratulatory messages.

Having been held for four consecutive years, the annual event has played significant role in solidifying friendship between calligraphers and artists and promoting friendly ties between both regions. The 5th of its kind will be organized in Luoyang City, Henan Province in April 2009.

제4회 하남성·경상북도 미술교류전
The 4th Henan - Gyeongsangbuk-Do Art Exchange Exhibition

니가타 - 일본

● 2008년 중일경제협력회의 in 니가타

6월1일~3일 중국 동북지방 진흥과 중일경제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2008년 중일 경제협력회의 in 니가타'가 니가타 시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측 주최자인 중일동북개발협회의 초 후지오 회장을 비롯, 니가타현을 포함한 도호쿠 7현(아오모리, 아키타, 이오테, 야마가타, 미야기, 후쿠시마, 니가타)의 지사 및 부지사가 참석했으며 중국에서는 주일중국대사를 비롯하여 중국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및 내몽골 자치구 부성장 등 중일 양국 관계자 720명이 참석했다.

'동북아시아 경제권에서의 중일경제협력 추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 전체를 고려하여 투자무역, 운송 에너지 절약 및 환경, 관광 등 중국 동북 지방을 둘러싼 양국의 주요 협력 분야의 상호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 보고 및 열린 토론이 니가타를 무대로 펼쳐졌다.



2008년 중일경제협력회의 in 니가타

2008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in Niigata

경상북도 - 한국

● 경상북도, 신일본석유(주)·GS칼텍스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는 지난 7월 3일 지식경제부 주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된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일본 신일본석유와 GS칼텍스가 2차 전자용 탄소소재 분야에 1억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S칼텍스 신일본석유의 이번 투자로 고용창출은 물론 핵심소재의 기술이전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현재 전량 수입하고 있는 무공해 고성능 이차전지분야에서 2,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경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Niigata Prefecture - Japan

● 2008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in Niigata

The 2008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in Niigata was successfully held in Niigata City aiming to promote development of the Chinese Northeastern region and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The conference was attended by 720 participants from both countries, including Fujio Chô, Chairman of the Japan-China Economic Association and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event; Governors and Vice Governors from Aomori, Akita, Iwate, Yamagata, Miyagi, Fukushima and Niigata Prefecture; Cui Tiankai, Chinese Ambassador to Japan; Vice Governors from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Heilongjiang, Jilin and Liaoning) and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Under the theme, "To Promote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Bloc", various case studies were presented and participants engaged in heated discussions on how to expand mutual economic exchange in the main fields of China-Japa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including investment & trade, transportation, energy conservation, environment and tourism.

Gyeongsangbuk-Do Province, Korea

● Gyeongsangbuk-Do Signed MOU with Nippon Oil Corp. and GS Caltex

In the first Korea Regional Investment Fair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n 3 July at the COEX building in Seoul, Gyeongsangbuk-Do Province signed an MOU with Nippon Oil Corp and GS Caltex on \$100 million investment to build the world's largest carbon materials production facility in Gumi. The investment by Japan's largest petro-chemical company and South Korea's second-largest refiner will not only create jobs, but also sharp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by accelerating technology transfer in the area of core material. Also, the domestic production of carbon materials is expected to bring about import-replacement effect tantamount to 200 billion won in non-pollutant high performance rechargeable battery industry. Moreover, it will provide greater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Gyeongsangbuk-Do's flagship industry, including renewable energy and materials & components.

남유진 구미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허동수 GS칼텍스 대표이사 회장, 마코토 사타니 신일본석유 부사장 (왼쪽부터)

Mayor Yoo Chin Nam of Gumi City, Governor Kwan Yong Kim of Gyeongsangbuk-Do Province, Chairman Dong-Soo Hur of GS Caltex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Makoto Satani of Nippon Oil (from left)

회원자치단체 동정

투브아이막 - 몽골

●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관광포럼(EATOF) 총회 투브아이막에서 개최

동아시아 10개국을 회원으로 한 지방정부관광포럼(EATOF) 제8회 총회가 7월 21일~23일까지 투브아이막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중국 길림성, 일본 도토리현, 한국 강원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필리핀 세부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베트남 쩡닌주 등 8개국 지방 정부 관계자가 참석, 회원 지방 정부간 공동관광상품의 개발·운영을 위한 전세기 및 크루즈협의체 구성, 여름캠프 통한 학생 인적교류, 차기 총회개최지 선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등 7개의 안건을 확정하였다. 또한 차기 총회가 한국 강원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내년을 '2009년 강원도 방문의 해'로 정했다.

하바롭스크 변경주 - 러시아

● 하바롭스크 변경주, 제3회 극동국제경제포럼 개최

2008년 9월 30일~10월 1일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제3회 극동국제경제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경제포럼은 러시아연방 정부 연방의회 두마가 주관하고, 하바롭스크변경주정부, 극동지역경제협의체인 '극동 바이칼 경제협회', 시베리아지역 경제협의체인 '시베리아 협정' 등이 주최한다.

'지역의 척도로서의 2020년도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0년도까지 러시아 연방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2025년까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연방정부 목표에 발맞추어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극동국제경제포럼은 콜롬비아대 교수이자 1999년도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만델, 노다리 시모니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에너지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2006년 제1회 극동국제경제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참가문의 : <http://www.dvforum.ru>

NEAR Member News

Tuv Province - Mongolia

● The EATOF 2008 General Assembly Held in Tuv

The 8th General Assembly of the East Asia Inter-Regional Tourism Forum (EATOF), a tourism cooperation network composed of 10 member provinces in East Asia, was hosted by Tuv Province, Mongolia from 21~23 July participated by eight members, including Jilin (China), Tottori (Japan), Gangwon-Do (Korea), Yogyakarta (Indonesia), Cebu (the Philippines), Sarawak (Malaysia) and Quang Ninh Province (Vietnam). During the conference, decisions were made to organize "The Chartered Flight & Cruise Committee" aiming at developing joint tourism products and programs, to promote student exchange through summer camps and to support PyeongChang bids for 2018 Winter Olympic Games among others. Also, as Gangwon-Do was selected as the next host of the General Assembly, the year 2009 was declared as "Visit Gangwon Year 2009."

Khabarovsk Territory - Russia

● Khabarovsk Scheduled to Host the 3rd Far Eastern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The 3rd Far Eastern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is to be held from 30 September to 1 October in Khabarovsk Territory, Russia, hosted by the Government of Khabarovsk, Interregional Associ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Far East and Transbaikalia" and the Interregional Association "Siberian Agreement", and organized by the State Duma of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the theme of "Strategy 2020: Regional Dimension", the forum will concentrate on elaboration of comprehensive issues related to the Federal Government's goal to achiev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by 2020 as well as of Eastern Russia up to the year 2025.

The meeting has been successfully held every year since the 1st Economic Forum, which was joined by high-profile professionals, such as Robert Mandell, the 1999 Nobel Prize winner in economics and Nodari A. Simonia, Director of Center for Energy Studies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More Information : <http://www.dvforum.ru>



● 극동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253억 5,000만 배럴이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2조 7,959억㎥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검은 보물섬' 사할린 유전에는 원유 225억 배럴과 천연가스 2조 2,020억㎥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전세계 총 매장량의 5%에 해당하며 향후 개발이 진행된다면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 수요의 무려 10~15%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할린주에서는 6개의 원유탐사 프로젝트에 착수, 지난 2005년 <사할린-1> 프로젝트를 통하여 원유 채굴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사할린-2, 3, 4, 5, 6, 7, 8, 9> 프로젝트도 현재 개발 중이거나 러시아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

<사할린-1> 프로젝트는 사할린 섬 북동쪽에 위치한 차이보, 오돔뚜, 아르꾸툰-다기 지역에서 원유 및 가스를 뽑아 올려, 러시아 본토인 하바롭스크주 데카스프리 터미널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자는 엑슨모빌의 자회사인 Exxon Neftegas Limited로서 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어 러시아 석유회사가 20% (로스네프찌 그룹사 RN-Astra (8.5%), Sakhalinmorneftegas-Shelf (11.5%)), 일본의 13개사 연합체 SODECO가 30%, 인도국영석유공사 ONGC Videsh Ltd 가 20%의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사할린-1> 프로젝트에서 채굴 가능한 원유의 가채 매장량은 23억 배럴, 가스는 4,850억㎥로 추정되고 있다.

사할린주의 석유가스 채굴을 위한 노력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소련방 정부와 일본 기업 컨소시엄 SODECO는 사할린주에서 공동으로 원유가스 매장지에 대한 탐사활동을 진행, 1977년 오돔뚜 지역, 1979년에는 차이보, 1989년에는 아르꾸툰-다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매장 사실을 확인한다.

하지만 당시 이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가스량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사할린주 공동 원유가



- ① 차이보의 천공기계
- ② 프리고로드노에 석유터미널
- ③ 알렉산드르 호로샤빈 사할린 주지사
- ① Boring machine in Chayvo
- ② Oil terminal located in Prigorodnoe
- ③ Governor Alexandr. V. Khoroshavin of Sakhalin Region

사할린-5

원유 40억 배럴, 가스 7,660억㎥
러시아·영국 기업 등 개발 추진

사할린-4

원유 17억 배럴, 가스 1,170억㎥
러시아·영국 등 투자

사할린-2

원유 10억 9,900만 배럴, 가스 4,320억㎥
러시아·영국·일본 기업 등 투자

사할린-3

원유 53억 7,600만 배럴,
가스 1조 730억㎥
중국·러시아 기업 개발 참여

사할린-1

원유 21억 2,500만 배럴, 가스 4,850억㎥
일본·미국·인도·러시아 기업 등 개발 참여

사할린

사할린-6

원유 7억 3,300만 배럴

사할린-8

가스 250억㎥

사할린-7

가스 710억㎥

사할린-9

가스 850억㎥



※ 매장량은 현재까지 확인 또는 추정량
< 자료 : 에너지 경제연구원, 러시아천연자원부 >

● Total reserves of oil and natural gas in the Russian Far East are estimated at 25.35 billion barrels and 2.7959 trillion cubic meters, respectively. In particular, in the Sakhalin field “the black island” alone, 22.5 billion barrels of crude oil and 2.202 trillion cubic meters of natural gas are estimated to be extractable. In other words, Russia possesses 5% of the total crude oil reserve and is expected to satisfy as much as 10~15% of the global demand in the future.

To this end, Sakhalin Region launched six oil exploration projects and succeeded in discovering oil in 2005 under the “Sakhalin-1” project. “Sakhalin-2,3,4,5,6,7,8,9” projects are either underway or under discussion with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

The Sakhalin-1 Project includes three offshore fields: Chayvo, Odoptu, and Arkutun Dagi. Under the project, construction was completed on a pipeline to transport crude from these fields to the De-Kastri terminal in the Khabarovsk Krai for export. Exxon Neftegas Limited (ENL), a subsidiary of Exxon Mobile is the operator for the multinational Sakhalin-1 Consortium (has 30% share). Co-venturers include affiliates of Rosneft, the Russian state-owned oil company, RN-Astra (8.5%) and Sakhalinmorneftegas-Shelf (11.5%); the Japanese consortium SODECO (30%); and the Indian state-owned oil company ONGC Videsh Ltd. (20%). Total recoverable reserves under the Sakhalin-1 Project are estimated to be 2.3 billion barrels of oil and 485 billion cubic meters of gas.

The oil exploration effort in the Sakhalin Region dates back to the 1970's. In 1975 the government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Japanese consortium SODECO started joint development of oil and gas fields and discovered reserves in Odoptu (1977) followed by Chayvo (1979) and Arkutun-Dagi (1989).

Though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the underestimation of the amount of the resources, the joint exploration

스 탐사 작업은 한동안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1년 엑슨모빌이 참여하면서 재개, 〈사할린-2〉 프로젝트 컨소시엄까지 구성된다.

이어 1995년, 〈사할린-1〉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석유가스 채굴에 따른 ‘생산물 분배 합의문’이 러시아연방 정부 및 사할린 주정부간 작성되었다.

〈사할린-1〉 프로젝트는 제일 먼저 차이보 지역에 탐사를 착수, 성공한 이후, 오돔푸, 아르꾸툰-다기 등의 지역으로 탐사 활동을 넓혀가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윽고 2005년 10월, 차이보 지역에서 원유채굴작업이 시작되었다. 〈사할린-1〉프로젝트는 첫 단계에서 원유 채굴량을 5만 배럴/일로 규정하고 수출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러시아 내수용으로 판매를 하기로 하였다. 천연가스 또한 2005년 10월부터 채굴이 시작되었는데, 채굴 첫 단계에서 일일 채굴량을 170만㎥으로 규정하였고, 초기에 채굴된 천연가스도 내수용으로 공급되었다. 2006년 8월에는 〈사할린-1〉 프로젝트에서 채굴된 원유 수출이 시작되었다.

〈사할린-1〉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방에서 외국인이 직접투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러시아연방과 외국기업 간 공동으로 석유가스 탐사 및 채굴 작업이 이루어진 이래 가장 복잡하면서도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임과 동시에 가장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 연방은 〈사할린-1〉 프로젝트를 통하여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500억 달러의 수익과 더불어 인프라의 현대화, 기술 이전, 현지 일자리 창출, 이동 통신 시설 확충 등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할린섬 북동쪽에 위치한 PA-A, PA-B, LUN-A 광구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사할린 남부 프리고로드노예로 끌어와 액화, 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할린-2〉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쉘(Shell)을 주축으로 하여 많은 일본회사들이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원유가스 채굴분야의 적극적인 외국인 기업 참여 덕분에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사할린주의 외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77.8% 증가했으며, 이 중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분야는 총 외국인 투자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주정부에 따르면 2007년~2008년에 걸쳐 〈사할린-1〉, 〈사할린-2〉의 본격 생산이 가동될 것이며, 2006년부터 시작한 〈사할린-3〉, 〈사할린-4〉, 〈사할린-5〉, 〈사할린-6〉의 지질조사는 2009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2015년까지 다수의 대형 석유·가스전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sumed as Exxon Mobile joined in 1991 and even a consortium for the Sakhalin-2 Project was created.

In 1995 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as completed between investors,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Sakhalin government.

The Sakhalin-1 Project is being executed in phases. The initial phase develops the Chayvo field. Production from Chayvo started in October 2005. The Project was initially producing up to 50,000 barrels of oil per day, which were sold to Russian Far East domestic customer before commissioning of the Project export system. Natural gas production also began in October 2005 to meet needs of domestic customers in the Khabarovsk Region and initially averaged 1.7 million cubic meters per day. The Sakhalin-1 Project oil export system was commissioned in August 2006. With the commissioning of the system, the crude produced by the Project is now supplied to international markets, to the greater benefit of the Sakhalin-1 Consortium and the Russian state.

The Sakhalin-1 Projec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ambitious, successful world-scale projects developed by international oil and gas industry to date, and represents one of the largest single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Russia. Project benefits to Russia include direct revenues to the Russian state estimated at over US\$ 50 billion over the life of the Project, major infrastructure improvements, technology transfer, the employment of Russian citizens, and the use of Russian suppliers for contracts and procurement.

The Sakhalin-2 Project is under execution as well joined by Shell Sakhalin Holdings B.V. and many Japanese companies as development consortium members. Under the project, oil and gas from PA-A, PA-B and LUN-A platforms in the northeastern shelf of the Sakhalin Peninsula are transported via onshore pipelines to Prigorodnoe, where LNG is produced.

Thanks to such participation in oil development projects, foreign investment in the Sakhalin Region increased by 77.8% in 2007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ile oil and gas development sector accounted for 43% of the total foreign investment.

The Sakhalin government says that the oil production under Sakhalin-1 and Sakhalin-2 projects will start in 2007-2008, while geological survey of Sakhalin-3, 4, 5, 6 projects will be completed in 2009. Also, many other large-scale oil and gas fields are expected to be discovered by 2015.



- ① PA-B (여름)
- ② 사할린-1 전경
- ③ 사할린-2 프로젝트(Sakhalin-2 Project)의 몰리크파크(Molikpak) 유전
- ④ 사할린주의 주도 유즈노사할린스크
- ⑤ 천연가스 액화공장 앞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
- ⑥ PA-B (summer)
- ⑦ Sakhalin-1 Project
- ⑧ Molikpak platform of Sakhalin-2 Project
- ⑨ Yuzhno-Sakhalinsk, the capital of Sakhalin Region
- ⑩ People fishing offshore in front of LNG plants



몽골 오르혼 아이막



Orkhon Province Mongolia

존경하는 NEAR 자치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6년 창설된 NEAR는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경제,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르혼아이막은 2006년 회원 가입 이래로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합의 발전 및 활동의 활성화, 협력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Dear honorable NEAR members,

Since its inception in 1996, NEA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member regions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culture and environment. Orkhon Province joined the membership in 2006 and has proactively participated in NEAR activities. I am glad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k you to join hands in further facilitating NEAR activities and realizing cooperation.



샤르후 오르혼아이막 지사
 Sharkhuu, Governor of Orkhon Province



개 황

몽골 최대 강인 셀렝강과 오르혼강 유역에 있는 오르혼 아이막(한국 '도' 단위)은 해발 1,200m, 몽골 중북부에 위치한다. 다크한울아이막과 셀렝게아이막, 불간아이막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오르혼아이막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80년대 초~70년대 초 몽골·구 소련·구 체코슬로바키아 지질학자들이 에르데네트(Erdenet)산 주변을 수 차례에 걸쳐 조사한 끝에 산업용 구리와 몰리브덴 매장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결과 1973년부터 시작된 에르데네트산 주변 지역 개발 및 인구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1976년에 에르데네트시가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1994년 에르데네트시의 행정구역이 확정되면서 오르혼 아이막이 설립되었다.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오르혼 아이막은 구리, 몰리브덴, 금, 은 등 다양한 광물 자원과 동식물이 풍부하다.

주요 산업

오르혼아이막의 주요 산업은 철광석, 몰리브덴, 구리 등 지하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광산업이다. 현재 오르혼아이막은 몽골 국내 총 산업생산량의 30%, 수출량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 총 생산량의 92.91%는 금속, 1.6%는 철강이다. 아이막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및 카펫 생산량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 에르데네트 구리광산 >

오르혼아이막에 있는 세계 5대 구리광산 중의 하나인 몽골-러

Overview

Near the biggest river in Mongolia, Selenge river, and the Orkhon river, Orkhon Province is located 1200m above the sea level in the middle-northern part of the country, bordering Darkhan-Uul, Selenge and Bulgan Province. Orkhon's history is as follows: From the early 1960's to the early 1970's, geologists from Mongolia, the former Soviet Union and former Czechoslovakia conducted exploration activities around Mt. Erdenet and discovered a rich deposit of copper and molybdenum. As a result, development of the region began from 1973 along with rapid population growth and in 1976 Erdenet City was established. Orkhon Province was cut out of Bulgan Aimag in 1994 to form a new entity together with its capital Erdenet, which had been administrated as a federal municipality.

Major Industry

The major industry of the province is mining, including iron ore, molybdenum and copper. The sector accounts for 30% of Mongolia's total industrial production and 47.2% of export. Metal and steel stands at 92.91% and 1.6% of total production, respectively. Orkhon's per capita income and carpet production exceeds the national average.

① 에르데네트시 ② 가무의 교장 '에르데네트' ③ 몽골 전통축제 "나담"의 씨름대회

① Erdenet City ② "Erdenet," the region of singing and dancing ③ Wrestling games of Mongolian traditional festival "Naadam"



시아 합작 “에르데네트” 구리광산은 구리 함유량이 높아 연간 2,5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동광 및 몰리브덴은 국내는 물론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 칠레,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다.

< 전기동 >

오르혼에서 생산되는 전기동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인정하는 순도+99.999% A급 품질의 전기동으로서 총 생산의 95%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 카페트 >

오르혼아이막은 카페트(양탄자) 생산지로 유명하다. 목축과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인에게 양탄자는 일찍부터 생활 필수품이었으며, 지금은 관광 특산물로도 각광받고 있다. 양탄자 공장에서는 순양모를 가공한 카페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무려 720개나 된다. 그 중에서도 ‘훈누’ 브랜드 카페트가 몽골 최고의 고밀도, 고품질 카페트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모포, 양모 슬리퍼, 술을 단 카페트, 각종 양모 기념품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몽골 최초로 울마크(Woolmark 순모(純毛) 제품의 국제기준 합격표시) 기준에 합격한 고순도 제품이다. 생산된 카페트는 국내 시장에 판매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헝가리, 호주, 스웨덴, 캐나다,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등 각지에 수출되고 있다.

< Erdenet Copper Mine >

Erdenet Copper Mine, a joint venture between Mongolia and Russia, is one of the five copper mines in the world producing as much as 25 million tons every year. Produced copper ore and molybdenum are transported nationwide or exported to various countries such as Australia, Canada, Korea, Chile, Russia and China.

< Copper Cathode >

Orkhon produces +99.999% “LME (London Metal Exchange) Grade A” quality copper cathode and 95% of its production is exported.

< Wool Carpet >

Orkhon Province is famous for carpet production. Carpet, a popular local product among tourists, has been one of the daily necessities for the stock-breeding nomadic people. Rugs and wall-to-wall carpets are manufactured in plants from raw wool to woven carpet in as many as 720 designs. Among them “Hunnu” is selected as the best quality brand with the highest density of texture. High purity products including wool blankets, wool slippers, tasseled carpet and various wool souvenirs are manufactured as well, which met the Woolmark (a certification mark used on pure wool products)



국제 교류

중국의 내몽골자치주의 에를리안시, 오르도스시, 보가트시, 러시아연방 부랴티아 공화국의 울란우데시, 이르쿠츠크주의 오설레 시비르스크시, 불가리아의 보르가스시, 독일의 작센 주 미트바이다, 스웨덴의 식투나시, 미국 알래스카주의 페어뱅크, 체코의 플젠스키시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다. 현재 오르혼아이막과 교역 관계에 있는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약 1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관 광

오르혼아이막은 중국과 러시아, 울란바타르시, 다르한시와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유주(馬乳酒) 테마 요양 관광을 위해 오르혼아이막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옛날부터 열을 내리는 특효약이라 하여 유목민들이 즐겨 마셨던 마유주는 인체에 요구되는 지방과 단백질, 필수탄수화물, 비타민 A, C, D, E가 풍부하며 폐결핵, 간질환, 위궤양, 중풍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standard for the first time in Mongolia. Orkhon carpets are not only sold in the domestic market, but also exported to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China, Russia, Hungary, Australia, Sweden, Canada, U.S., Germany, Japan, Spain and UK.

International Exchange

Orkhon has friendly ties with Erlian, Ordos and Bugat City of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China); Ulaan Ude of the Republic of Buryatia, Ussolie Sibirskoe City of Irkutsk Region (Russia); Burgas City (Bulgaria); Mittweida of Saxony Province (Germany); Sigtuna City (Sweden); Fairbanks of Alaska (US); and Plzenski City (Czech Republic). The number of foreign citizens living in Mongolia from 20 countries or Mongolian trading partners amounts to approx. 1000.

Tourism

Orkhon Province has railway connection with China, Russia, Ulaanbatar City and Darkhan City. An increasing number of tourists are visiting the province to drink horse milk wine for recuperation and treatment. Rich in fat, protein, carbohydrate and vitamin A, C, D and E, horse milk wine has been loved among nomad tribes especially as a specific remedy for high fever as well as tuberculosis, liver disease, gastric ulcer and paralysis.

① 몽골 전통 악기-마두금 ② 에르데네트 구리광산 ③ 고밀도, 고품질의 오르혼 카펫 ④ '에르데네트 카펫' 공장 ⑤ 오르혼아이막의 미래
⑥ Mongolian traditional instrument "Morin Khuur" ⑦ Erdenet Copper Mine ⑧ High-quality, high-density carpets of Orkhon ⑨ "Erdenet Carpet" factory ⑩ The future generation of Orkhon Aimag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우790-834)
Tel : +82-54-223-2311~20, Fax : +82-54-223-2309
E-mail : aramyoo@neargov.org
www.neargov.org

3F, Pohang TP, 601 Jligok-dong, Nam-gu, Pohang City,
Gyeongbuk, Republic of Korea, 790-834
Tel : +82-54-223-2311~20, Fax : +82-54-223-2309
E-mail : aramyoo@neargov.org
www.neargov.org